

애완동물의 천국

명지대학교/컴퓨터공학과 교수 이기현

필 자가 미국 생활을 하면서 느낀 점은 미국은 “천국(天國)의 나라이다” 라고 별명을 붙이고 싶었다. 그것은 어린이 천국, 여자 천국, 노인 천국, 장애인 천국, 애완동물 천국이 바로 그것이다. 그 중에서도, 미국이 가진 ‘세계 제일’은 애완동물의 천국이라는 것이다. 미국인들이 기르고 있는 애완동물은 종류가 많을 뿐만 아니라 수가 엄청나게 많다.

미국 수의과 협회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공식적으로 등록된 미국내의 견공의 수는 5천4백여 만에 이르고 고양이의 수는 6천 3백여 만에 이르고 있으며, 이밖에 다른 애완동물의 수는 2천9백여 만으로 집계되어 모든 애완동물의 수를 더한다면 이보다는 훨씬 많을 것이다.

한편, 여론조사에 의하면 이와 같은 천문학적인 숫자에서 뿐 만 아니라 애완동물 소유자들의 70%는 자신이 기르고 있는 애완동물에 대하여 마치 자식과 같은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도 다른 나라의 추종을 불허하리라고 생각된다.

실제로 필자가 비록 짧은 기간이나마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 행정수도인 새크라멘토에서 살면서 인상깊게 느낀 것 가운데 하나는 미국인들은 애완동물에 대한 애정이 극성스럽다 못해 변태적이라고 할 정도라는 것이다. 백화점과 각종 상점들이 밀집되어 있는 큰 쇼핑몰에는 대개 애완동물 가게가 있는데 이곳에서 취급하는 애완동물의 종류는 우리들의 상상을 초월하기에 충분하다. 예를 들면 새끼돼지, 여러 종류의 쥐, 고슴도치, 카멜레온이 있는가하면 박쥐, 뱀, 전갈, 두꺼비와 같은 혐오스러운 동물들도 버젓이 진열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나아가서 애완동물의 생태적 특성과 인간과의 관계, 사육에 관한 책자 등 교육적인 자료들도 함께 취급하고 있다.

동물 애호가인 월터 엘런이라는 사람은 사재를 털어 남가주 오렌지 파운틴 벨리에 거북이만을 전문으로 사육하는 “까사 데 토르뚜가(Casa de Tortuga; 거북이의 집)” 라는 이색 동물원을 설립하여 운영 중인데, 이곳에서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6백여 마리의 각종 거북이들이 보호되고 있다. 그리고 방문객에게 거북이의 생태에 관하여 상세하게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북이를 일반 가정에 보내어 실제로 기르게 하는 위탁 양육 프로그램도 실시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참여 신청서를 내고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애견가들과 정부가 합작으로 3에어커의 부지에 7만 달러를 들여 조성한 남가주 “레돈도 비치 도그 파크” 에는

놀이터는 물론이고 간이 화장실과 야외식사를 할 수 있는 먹이통과 물통이 구비되어 있을 정도이다. 문자 그대로 ‘개공원’이다.

그리고 미국을 여행하다 보면 어디를 가나 비록 산간 오지라고 할지라도 사람이 이용하는 슈퍼마켓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애완동물들의 먹이가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사람을 치료하는 사설개인병원들이 점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가축병원들은 활기를 띠고 있다고 한다. 예로써 뉴욕에는 9층짜리 “해니멀 메디컬센터”라는 가축병원이 성업중인데, 이 병원에는 전자심전계를 비롯한 각종 최첨단 의료장비를 갖춰 놓고 암에 걸린 개로부터 신경쇠약에 걸린 고양이까지 치료하고 있으며, 이 병원을 찾는 애완동물의 수는 연간 6만2천여 마리나 된다고 한다.

콜로라도주 덴버시에 있는 “콜로라도 주립 수의학과대학 암 센터”에는 30명의 암 전문의가 있는가 하면, 남가주의 오렌지카운티 파운틴 배리에 있는 “올케어 애니멀 레퍼럴 센터”라는 동물종합병원에는 상근 전문의가 25명이며, 뇌수술이나 CT-스캔이나 코발트-60방사선 치료기 등 400여만 달러 상당의 최첨단 의료장비를 갖추고 있어서 뇌수술이나 척추수술 등의 어려운 수술을 필요로 하는 애완동물들이 치료를 받기 위하여 주인과 함께 이곳으로 몰려온다고 한다.

이와 같은 고급의 치료 요구는 1986년 이후 거의 3배나 증가되었는데 좀더 그 치료 내용을 보면,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개에게 인간이 복용하는 신경 안정제를 처방하는가 하면, 혈통 확인을 위한 유전자 감별법도 사용된다고 한다. 어쨌든 애완동물의 병 치료에 드는 연간 의료비가 8천 40여억 달러에 달하는데 이는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라는 게 미국 수의사 협회의 보고 내용이다. 일부 미국인들은 자기 애완동물을 위하여 의료보험까지 들고 있는데 개와 고양이를 합하여 7천마리 정도로 그 수는 비록 적지만 미국인들의 애완동물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놀라울 뿐이다.

“미국 애완동물용품 제조업체협회”에 따르면 추수감사절이나 크리스마스 등 국경일을 맞아 자기의 애완동물에게 줄 선물 구입비로 미국인들이 쓰는 돈은 자그마치 50여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고 하는데 주인으로부터 선물을 가장 많이 받는 애완동물은 역시 개와 고양이이며, 새의 약 40%와 기타 다른 애완동물들도 선물을 받는다고 한다.

선물의 종류도 다양한데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9천 4백 달러짜리 “페드 맨션”이라든지 피자 맛이 나는 돼지 귀라든지 영국제 견공용 재킷, 방취제 샴푸가 있는가 하면, “에비앙” 상표의 물을 사용하여 만든 견공용 생일 케익이나 스낵 비스킷 등도 있다. 그런가 하면 견공용 소파와 식탁도 있고, 고양이의 무료함을 달래주기 위한 고양이용 비디오(미디어 웨스트 홈 비디오사 제품)도 있으며 배터리로

작동하는 고양이용 장난감(메가다인 프로덕트사 제품)도 있다. 이정도면 미국인들의 애완동물에 대한 애정과 정성이 어느 정도인지 알만도 하다.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는 또 다른 실례가 있다. 캘리포니아주에는 97년 새해를 전후한 연말연시에 10여일 동안 많은 비가 내려서 중부 이북의 47개 카운티(행정단위로 우리의 군에 해당)가 완전히 물에 잠기는 대홍수가 한 곳으로 대피시킨 일이 있었다. 이때에 사람만 대피시킨 것이 아니라 애완동물도 대피시켰는데 특히 애완동물을 위하여 각 카운티마다 ‘애니멀 셸터’ 라고 하는 애완동물 집단 수용소를 설치하여 수 백마리의 애완동물을 주인 대신 보호하는 것을 보았다.

미국에서는 비록 자기가 기르는 개라도 때린다든지 발로 찬다든지 하는 가혹 행위를 하다가 목격자가 고발하면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렵다는 것은 흔히 알려진 사실이다. 그 뿐만아니라 2001년 4월 미국의 일부 주정부는 개를 사고 팔거나 선물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정했다.그야말로 미국 땅에서는 “개권은 인권” 이라 하여도 지나친 말이 아닐 정도이다.

초등학교에서 대학교에 이르기까지의 학생들 가운데는 자기가 기르는 애완동물을 데리고 등교하는 모습을 가끔 볼 수 있는데 이중에 개와 고양이는 보통이고, 더러는 돼지나 두꺼비도 있고 심지어는 여러 마리의 갈색쥐를 철달

속에 넣어 가지고 오는가 하면, 뱀을 목에다 감고 다니는 학생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미국인들이 애완동물을 좋아하는 이유는 원래부터 동물을 좋아하는 서양인들의 기질 위에 어렸을 때부터 실천을 통한 동물애호교육과 경제력의 향상에 따른 여유와 독신자들의 증가와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 사회에서 심적 안정을 갈망하는 사람들의 욕구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이들이 동물을 맹목적으로 좋아만 하는 것은 아니다. 개를 데리고 산책할 때는 반드시 개목걸이를 채우고, 분노는 반드시 주인이 휴지로 처리한다. 이와 같이 철저하게 청결을 유지하려는 모습과 이웃에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 또한 대단함을 볼 수 있다.

우리들은 어떠한가? 반성해볼 일이다. 밀집된 아파트 단지의 아파트 거주자 가운데 애완동물을 풀어놓고 기르거나 하면 개를 데리고 밖으로 나오면 개목걸이를 풀어버리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갑자기 덤벼들어 놀라게 하기도 하고, 아무데서나 오물을 배설하는 것을 보고도 주인은 치우기는커녕 당연하다는 태도다.

이처럼 잘못 관리하면 혐오감을 갖게 되며 이웃에 피해를 주게된다. 그뿐만아니라 애완동물에 대한 청결유지도 매우 중요하다. 가축병원을 정해놓고 주기적인 검진과 예방접종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애완동물로부터 악성 피부병에 걸리는가 하면, 브르셀

라균같은 무서운 병원균에 감염되어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브르셀라균은 인수(仁獸)공통 병원균으로 사람의 생식기관에 감염되었다가 차츰 두뇌 쪽으로 전이되어 뇌세포를 파괴하는 무서운 병원균으로 현재로서는 예방과 치료가 불가능하다.

정력에 좋다고 하여 이른봄부터 산천의 개구리가 남획되고, 까마귀가 사냥의 대상이 되며, 신경통에 효험이 있다고 하여 고양이가 수난을 당하는가 하면, '개고기도 식용'이라는 판결(서울지법 형사 항소 4부)이 내려진 우리나라의 현실과 미국사람들의 동물사랑 정신과는 너무도 대조적인 생각의 차이를 느낀다. 환경 파괴에 대한 우려가 심각한 이 시대에 애완동물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시작하여 자연이 조화를 이루어 아름답게 사는 세상을 가꾸어 나아가는 정신과 실천적 자세가 절실히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